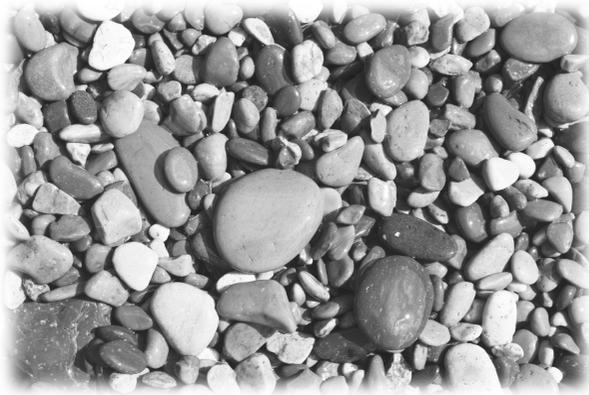


마음 다루기 서양의 붓다

숨은 조화

| 오쇼 라즈니쉬 | 손민규 옮김 |

겉보기에 같등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전체 속의 숨겨진 조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이 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시는 참으로 회화적이다. 오래된 연못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리고 개구리가 뛰어든다. 그대는 물이 튀는 것을 볼 수 있다. ‘퐁당’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바쇼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삶이다. 오래된 연못, 그 속에 뛰어드는 개구리, ‘퐁당’하는 물소리... 그리고 침묵. 이것이 그 대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침묵.

헤라클레이토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먼저 그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는 경구를 준다. 그는 시인이지만 보통의 시인이 아니다. 그는 힌두교에서 ‘리쉬rish’라고 부르는 시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인이 있다. 하나는 여전히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통해 시를 짓는 시인들이다. 바이런Byron, 셸리Shelley, 키이즈Keats 같은 시인이 이 부류에 속한다. 그다음에 ‘리쉬’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시인들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그들은 실체를 꿰뚫어보며, 이 실체로부터 시가 태어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리쉬다. 그는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시인, 존재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시인이다. 그는 서양에서 최초의 실존주의자다.

이제 그의 신비스러운 경구를 깊이 들여다보자.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훨씬 낫다.

왜 그런가?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드러난 것은 표면적이다. 그리고 표면은 거짓이기 쉽다. 표면은 다듬어지고 인공적인 것이기 쉽다. 중심에서 그대는 실존적이지만 표면에서는

사회적이다. 결혼이 표면적이라면 사랑은 중심에 있다. 사랑은 숨은 조화이지만 결혼은 겉으로 드러난 조화이다.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자.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그들 부부가 성난 얼굴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정중하고 너무나 다정하게 말한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조화다. 표면적으로는 조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 조화도 없다. 이것은 그저 형식이고 겉치레일 뿐이다. 진정한 인간은 겉으로는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중심에서는 항상 조화롭다. 스스로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그 모순 속에는 숨은 조화가 있다.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 사람, 표면적으로 철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조화가 없는 사람이다.

항상 일관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반되는 요소들이 만나 어우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는다. 그들은 표면적인 삶을 살면서 철저한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관성은 진정한 일관성이 아니다. 깊은 곳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들끓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잘해 나간다. 그대는 그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잘 안다. 그대 또한 그들과 같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그대는 잘해 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표면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말라. 더 깊이 들어가라. 대립되는 것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양쪽 모두를 살아가야 한다.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살 수 있다면, 사랑하면서도 주시자로 남고, 미워하면서도 주시자로 남을 수 있다면, 이 주시가 숨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때 그대는 사랑과 미움이 변화 무쌍한 기분일 뿐이며 계절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

는 이 상반되는 것들 안에서 게슈탈트Gestalt를 볼 것이다.

‘게슈탈트’라는 이 독일어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 단어는 배경과 형상 사이에 조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배경과 형상은 대립되지 않는다. 겹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은 검은 칠판 위에 하얀 백묵으로 글씨를 쓴다. 검은색과 흰색은 상반된다.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에 그들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이다. 그들은 대립되는 양극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왜 검은색 칠판에 하얀색 글씨를 쓰는 것일까? 하얀색 칠판 위에 하얀색 글씨를 쓸 수는 없을까? 또는 검은색 칠판 위에 검은색 글씨를 쓸 수는 없을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용한 것이다. 검은색이라는 배경이 있어야만 흰색이 그 위에 형상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대조된다. 그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들은 상반된다. 거기에 숨은 조화가 있다. 흰색은 검은색 위에서 더 하얗게 보인다. 이것이 조화다. 하얀색 칠판 위에서 하얀색 글씨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거기엔 긴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게슈탈트로 만들었다. 십자가가 검은색 칠판이 되었고, 이 칠판 위에 예수는 더 하얗게 되었다.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가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는 붓다와 마하비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십자가 덕분이다. 세상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십자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색 칠판 위에 씌어진 흰색 글씨다. 그러나 붓다는 하얀색 칠판 위에 쓴 하얀색 글씨다. 거기엔 대조가 없다.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배경과 형상이 똑같다.

단지 사랑만 하고 미워할 수 없다면 그대의 사랑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것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에는 강렬함이 없다. 불꽃같은 열정이 없다. 그저 차갑게 식은 감정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열정이 된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열정은 강렬하다. 사랑이 어떻게 열정이 되는가?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의 자비는 무능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는 무능하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는 미워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미움이라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열정이 있다. 이때 배경과 형상이 조화를 이룬다. 하나의 계슈탈트가 형성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계슈탈트에 대해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조화는 진짜 조화가 아니다. 숨은 조화가 진정한 조화다. 그러나 표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보다는 깊은 곳의 무질서 사이에서 일관성을 발견하라.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라.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훨씬 낫다.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차이점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표면적으로만 조화롭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중심에서 조화롭다. 종교적인 사람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일관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도덕적인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예수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측을 불허한다.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하는 한편, 사원에 들어가 채찍을 휘두르며 환전상들을 내쫓았다. 그는 자비에 대해 말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사원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그는 혁명적이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 그는 아주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버트란드 러셀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꼬집고 있다.

“예수는 일관성이 없다. 그는 신경증 환자 같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화를 낸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에게도 화를 내다. 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 상태에서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갔다.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았다. 이때 예수는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퍼부었다. 무슨 인간이 이런가? 이런 그가 사랑을 말한다고?”

예수는 숨은 조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러셀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는 현대판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내면에 깃든 숨은 조화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러셀이 기독교인이 안 된 것은 잘된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는 종교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는 도덕주의자다. 모든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과의 일관성인가? 누구에 대한 일관성인가? 누구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과거와의 일관성? 내 말이 다른 말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가능한 일이다.

강을 보라. 강은 때로는 오른쪽으로 굽어지고, 때로는 왼쪽으로 굽어진다. 때로는 남쪽으로 가고 때로는 북쪽으로 간다. 그대의 눈에는

표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보다는 깊은 곳의 무질서 사이에서 일관성을 발견하라.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라.

이 강이 아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숨은 조화가 있다. 강물은 바다에 도달한다. 강물이 어디로 가든 바다가 목적지다. 강물은 때로는 남쪽으로 간다. 땅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때로 강물은 북쪽으로 간다. 땅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강은 똑같은 목적지를 지향한다. 강물은 언제나 바다를 향한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강물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

“나는 항상 남으로 갈 것이다. 내가 북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 강물은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러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물은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일관적이다. 너무 표면적이다. 그들은 숨은 조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대립되는 것들을 통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대립되는 것들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그들은 아는 게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훨씬 낫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에게 일관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숨은 조화는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일부이지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사회는 인

위적인 현상이다. 사회는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근거로 한다. 사회는 부동의 도덕과 율법을 만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똑같은 도덕률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도덕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소위 도덕주의자들은 계속 똑같은 설교를 늘어놓는다. 그들의 설교는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일관성을 맹목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시대와 어긋나는 일이 계속된다.

모하메드 시대에 아라비아 지역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네 배나 더 많았다. 전사^{戰士}였던 아라비아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살육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네 배나 더 많은 숫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가 네 배나 더 많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남자 한 명이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율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하메드교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따르고 있다.

이제 그것은 아주 추한 율법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일관성 있게 코란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네 배나 더 많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이 율법을 따른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지혜로운 방편이었던 율법이 이제는 추해졌다. 너무나 추한 일이다. 그러나 모하메드교인들은 그 낡아빠진 율법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할 수 없다. 다시 모하메드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교인들은 아주 교활하다. 그들은 다른 예언자들이 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언자가 와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하메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선포했다. 이제는 모하메드 자신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해도 올 수 없다. 모하메드교인들이 문을 닫아 걸었다. 항상 이런 식이다. 도덕주의자들은 문을 닫아 건다. 새로운 예언자가 오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언자는 낡은 규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순간을 산다. 그는 자기만의 고유한 규범을 가질 것이며, 지금 이 현실에 대응할 것이다. 그가 과거를 고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런 보장도 없다. 그래서 도덕주의라는 전통은 문을 닫아버린다.

자이나교인들 또한 문을 닫아버렸다. 그들은 마하비라mahavira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한다. 이제 더 이상의 티르탕카라tirthankara(자이나 교에서 깨달은 스승을 일컫는 말. '여울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다. 마하비라 이전에 23명의 전법자傳法者가 있었다고 하며, 마하비라는 24조다)는 없다.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드를 마지막 예언자라 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의 독생자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아들은 없다. 모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도덕주의자들이 항상 문을 닫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안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오면, 순간에서 순간을 사는 예언자가 오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교회, 도덕률, 규범 등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 그대는 그 규칙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대는 분명히 조화를 얻었다. 그런데 다시 예언자가 오면 그는 모든 것을 혼란시킬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도덕주의자는 표면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규범이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규범을 위해 살아간다. 그들을 위해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전을 위해 있다. 그들은 규범을 따를 뿐 자각이 없다. 자신의 각성된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 자각과 주시의 빛을 따라. 그러면 숨을 조화를 얻을 것이다. 이때 그대는 대립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그 대립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대는 비밀의 열쇠를 얻은 것이다. 미움을 통해 그대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미움은 사랑의 적이 아니다. 마음은 사랑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감미료와 같다. 미움은 배경이다. 이때 그대는 분노를 통해 자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분노는 자비와 반대되지 않는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의미가 그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적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다.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숨은 조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다.

분노라는 원수가 있다. 그것을 이용하라.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미움이라는 원수가 있다. 이 원수를 이용하라. 그것을 친구로 만들어라. 미움을 통해 그대의 사랑을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시켜라. 미움을 토양으로 삼아라. 미움은 사랑의 토양이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숨은 조화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립되는 것을 이용하라. 대립되는 것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훌륭한 배경이다.

대립은 화합을 가져오고

불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난다.

아무도 헤라클레이토스를 능가하지 못한다.

대립은 화합을 가져오고

불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난다.

만물은 변화 속에서 안식을 발견하니,
자신과 불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일치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수금磬琴과 활의 경우처럼
구부러진 등에도 조화는 있다.

활의 이름은 삶이지만
그 일은 죽음이다.

(끝) 

- 이 글은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 그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강의를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는 20세기를 빛낸 천 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Tom Robbins)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기도 했다. 인도의 선데이 미드데이(Sunday Mid-Day)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열 명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간디, 네루, 붓다 등의 인물과 더불어 오쇼가 포함되어 있었다. 오쇼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했으며, 점점 가속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명상법을 도입하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혁명적인 공헌을 하였다.

역자 | **손민규** |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교류했다. 영혼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 큰 감화를 받았고, 오쇼의 법맥을 이은 끼란지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명상 서적 전문 번역가로 일하면서 50여 종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 소개했다. 현재 오쇼와 끼란지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오쇼코리아(oshokorea.com)를 이끌고 있다.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저자 오쇼 | 역자 손민규 | 출판사 태일 | 정가 15,000원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으로 포착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를 그리스 시대라는 시공의 틀에 한정 짓고, 철학자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엄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이제 그 무모한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의 머리 위에 씌워놓은 철학의 가시 면류관을 벗겨내야 한다. 여기, 오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름에 붓다의 향기를 불어넣는다.

이 향기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제 젊은 철학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심어놓은 꽃들만 만발한다. 향기에 취할 자도 남아 있지 않다.